

“솔직히 자존심 상했다”…KIA 나성범, 실력으로 답했다

시즌 전 저평가 딛고 정규리그 3위…준PO 이끈 주장 타율 0.303·31홈런·97타점…“KS서 좋은 경기할 것”



“우리 팀이 그렇게 약해 보이냐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선수들 모두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 3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캡틴’ 나성범이 정규 시즌 3위를 확정된 뒤 시즌 전 팀을 향한 낮은 평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냈다. 부상 악몽을 떨쳐내고 개인적인 부활을 이뤄낸 그는 이제 한국시리즈 진출을 향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있다.

나성범은 지난 12일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된 뒤 시즌 전 KIA를 향해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다.

그는 “우리 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다. ‘우리 팀이 그렇게 약해 보이냐’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그런 평가를 보면서 더 철저히 준비했던 것 같다. 나 역시 올해를 반등의 시즌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우리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시즌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달려왔다”며 “당당하게 3위로 올라온 만큼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성범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최근 수년간 종아리와 햄스트링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올해 140경기에 출전해 508타수 154안타 31홈런 97타점 타율 0.303 OPS(출루율+장타율) 0.920을 기록했다. 2022년 KIA 입단 이후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내며 중심타자로서 존재감을 되찾았다.

특히 부상 없이 정규시즌을 완주한 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나성범은 “144경기를 모두 뛰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성적을 떠나 다치지 않고 한 시즌을 완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아쉬움도 남았다. 타점 3개가 부족해 개인 통산 세 번째이자 KIA 입단 후 첫 3할·30홈런·100타점 동시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오랜만에 3할·30홈런·100타점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타점이 조금 부족했다”며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아웃이 되더라도 타점을 올렸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기록이다. 내년에는 그런 상황에서 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치열했던 3위 경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지난 3~5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원정 3연전을 꼽았다.



지난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LG트윈스와의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한 KIA타이거즈 주장 나성범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당시 4위였던 KIA는 LG와의 3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3위 탈환에 성공했다.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승부였다.

나성범은 “LG와 3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던 상황이었다. 그때 한 경기라도 졌다면 마지막 경기를 이겼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 경기를 모두 잡은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최종전에서 터진 김도영의 홈런은 주장에게도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나성범은 “처음에는 타구가 낮아 안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담장을 넘 어갔다”며 “그 순간 양현종 형과 하주석 등 동료들과 서로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보니 다음 타석에서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웃었다.

지난달 27일 LG전에서 얻은 우천 노계임도 특별한 기억이다. 당시 KIA는 0-2

로 뒤지고 있었지만 폭우로 경기가 취소됐고, 재편성된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3위를 확정했다.

그는 “그날 경기가 그대로 패배로 끝났다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준비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제 나성범의 시선은 가을야구를 향한다. KIA는 오는 17일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과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나성범은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철저히 준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넘어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가 KT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역대 최대 스포츠과학 지원팀 파견

6개 팀 구성해 선수별 맞춤형 컨디셔닝·전력 분석 지원
AI·유전자 빅데이터 활용…부상 예방부터 심리 상담까지

광주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과학 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한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6개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과학 현장 밀착지원팀을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팀은 광주스포츠과학센터 박사급 연구원과 컨디셔닝센터 전문 트레이너, 송원대학교 산학연 지원 인력 등으로 꾸려졌다.

선수들의 종목별 특성과 개인별 신체 상태를 고려해 경기 전부터 종료 후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우선 경기 전에는 개인별·종목별 컨디

셔닝 프로그램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 상태를 최적화한다. 경기 중에는 실시간 전력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과 기술적 보완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경기 후에는 인공지능(AI)과 스포츠 유전자(DNA)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수들의 피로 해소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 부담과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스포츠 심리 상담, 도핑 관련 컨설팅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현장 지원은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학생선수 지원 사업과 송원대학교의 산학연 협력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부터 스포츠 유전자 분석과 학생선수 현장 밀착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송원대학교 역시 광주시체육회와 체결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6개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과학 현장 밀착지원팀을 파견한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측정장비 활용 교육과 컨디셔닝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스포츠과학 전문 인력과 첨단 분석 기술을 경기 현장에 접목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계적인 부상 관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은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명예를 걸고 뛰는 마지막 무대인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후회 없이 펼칠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OK 윗맨력비단, 전국체전 메달 탈환 도전

오늘 고려대와 첫 경기…2024년은 이후 2년 만 입상 목표

OK 윗맨력비단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해 2년 만의 메달 획득을 노린다.

OK금융그룹이 운영하는 OK 윗맨력비단은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럭비 일반부에 광주 대표로 출전해 15일 서울 대표 고려대학교 럭비부와 첫 경기를 치른다.

윗맨력비단은 실업팀 전환 2년 차였던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올해는 국내외 전지훈련과 일본 실업팀과의 평가전 등을 통해 전력을 끌어올린 만큼 2년 만의 사상대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윗맨력비단은 올 초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 축적에 공을 들였다.

지난 1~2월 전남 해남과 경남 거제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3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경기력을 다졌다.

특히 지난 7월 일본 실업팀 JR서일본 레일러스와 치른 테스트매치는 선수단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윗맨력비단은 26~29로 석패했지만 경기 종료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일본 원정은 전국체전 대비뿐 아니라 구단이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일본 Top West 리그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윗맨력비단은 일본 실업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해외 리그 참가를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평창 전지훈련과 대학팀 연습 경기, 문경 합숙훈련 등을 이어가며 조직력을 가다듬었다. 대회를 앞두고는 용인에서 집중훈련을 진행하며 실전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점검하고 경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전국체전은 선수들이 한 시즌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라면서 “새로운 상대와 끊임없이 부딪치며 성장해온 선수들이 준비한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순간 일수록 동료들 미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럭비의 가치”라며 “광주 대표로 출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OK 윗맨력비단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해 2년 만의 메달 획득을 노린다.

사진제공=OK윗맨력비단

광주시육상연맹, 선수단 체력 관리 지원 앞장

부귀 F&B와 무협약…선수·지도자에 양질의 식사 제공

광주시육상연맹이 지역 외식기업과 손잡고 육상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육상연맹은 지난 13일 지역 외식기업 부귀 F&B와 광주 육상 발전 및 선수단 지원을 위한 ‘공식 지정식당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체력 소모가 큰 육상 선수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귀 F&B가 운영하는 음식점들은 광주시육상연맹의 공식 지정식당으로 지정돼 연맹 소속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귀 F&B를 이끄는 최희종 대표는 전 남 담당 출신으로, 광주에서 13년째 해산물 전문점을 운영해 온 지역 외식업계 경영인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주꾸미 전문점과 해물탕 식당 등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보



양식 전문점 ‘진심장어’ 봉선점과 윤남점을 비롯해 금호동 주꾸미 전문점 ‘주사장’, ‘신쭈꾸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지역 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온 최 대표는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과 인연을 계기로 이번 후원에 동참했다. 광주 육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김 회

장의 뜻에 공감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사 지원에 나선 것이다.

최희종 대표는 “김민주 회장과 소중인 인연을 통해 광주 육상 꿈나무와 선수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건강한 음식으로 선수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광주 육상과 지역 체육 발전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